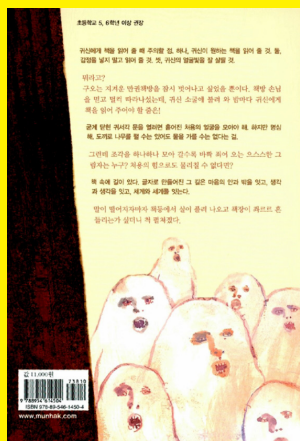


한밤에 깨어나는 도서관 귀서각

온작품읽기 수업하기(5~6학년용)

만든이 눈부시개



이 활동지는 학교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출판사로부터 본문 내용과 삽화 인용을 허락받아 만들었습니다. 사적, 영리적 사용과 배포를 금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 정회원은 누리집 www.urimal.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활동지에 관한 문의는 작은모임 눈부시개로 연락하세요.



보린 글·오정택 그림, 문학동네 (2011)



대구모임 _ 눈부시개

눈부시개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초등국어 교과모임입니다. 2006년 2월 첫모임을 가진 뒤 말글이 피어나고 이야기가 흐르며 삶을 노래하는 교육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눈부시개는 ‘세상을 눈부시게 만드는 도구’라는 뜻의 새로운 낱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함께 쓴 책

『온작품읽기, 아이들의 삶을 만나다』 (삶말, 2018)

『미래를 모릅니다 다만 감히 토론해 봅니다』 (삶말, 2019)



우리말 우리글
우리교육을 복돋는

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은

어린이들의 삶을 복돋고,
우리말과 글을 제대로 가르쳐 보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혼자 하기보다 여럿이 머리를 맞댄다면 그 안에 우리 아이들과
교육을 살리는 길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계절마다 잡지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누리집 안에서 교실 이야기, 학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온 나라 선생님들이 함께 먹고 자면서
잔치 같은 이야기판, 놀이판을 펼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씨앗이 되어서 말과 글, 놀이와 일,
삶이 참되게 살아나는 교육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정회원

- 다달이 회비(1만원)를 내는 회원입니다.
- 모임 누리집에서 다른 회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 모임에서 여는 배움터에 참여하여 전국의 선생님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 겨울 배움터에서 열리는 모두모임에 오셔서 모임의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 모임에서 내는 계간지와 각종 출판 · 인쇄물을 받고, 계간지에 글을 실을 수 있습니다.
- 뜻을 함께 하는 분들과 작은모임을 꾸리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회원 가입하기

- 누리집 www.urimal.or.kr 우리모임소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씁니다.
- yy0117@hanmail.net로 보냅니다.
- 궁금한 점은 연영 간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010-5509-9284)

책 소개 영상 _ 02

교실 게시용 포스터 _ 02

미션! 처용의 얼굴을 찾아라! _ 03

- 온작품읽기 수업 학생 활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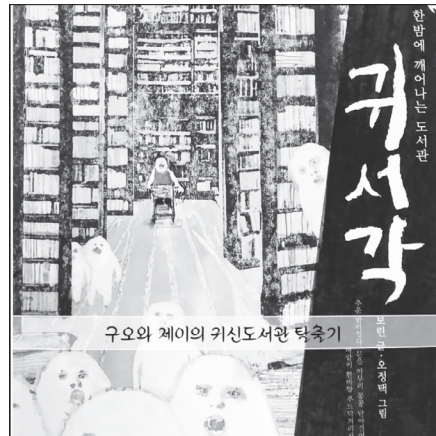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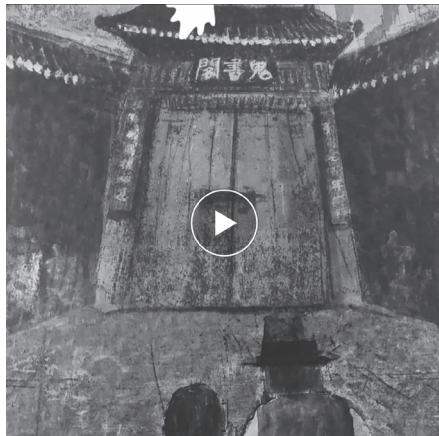
신과 함께 띠 빙고를! _ 11

- 책놀이 자료

학생 활동지 해설 _ 14

선생님 읽을거리 _ 17

책 소개 영상



교실 게시용 포스터



귀신 이야기 좋아하니?

귀신들이 사는 도서관, 그곳이 바로 귀서각이야.



살아남아라!
귀서각에 들어온 인간 구오.
보기만 해도 오싹한 귀신들이 구오를 노린다.
손각시, 그손대, 지귀... 너무 많다.
과연 구오는 살아남아 귀서각을 나갈 수 있을까?



나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라!
두둥- 최강 귀신 창귀까지 등장!
'지금 나 살기도 힘든데 세상까지 구하라고? 너무 만기 아니야?'
결국 힘을 받아들이며 변해 가는 구오.
그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



넌 사람이니 귀신이니?
귀서각에서 만난 제이.
매스게 추운 한겨울에 맨발로 구오 앞에 나타난 제이는 과연 사람인가.
귀신인가?
구오를 돕는건지 아닌건지도 애매한 제이는 어떤 존재일까?

영상과 포스터 파일은 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

누리집 www.urimal.or.kr

자료마당 - 함께만드는부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션! 처용의 얼굴을 찾아라! _ 온작품읽기 수업 학생 활동지

<한밤에 깨어나는 도서관 귀서각>에 길이 있다

반갑소! 나는 역신을 쫓는 처용이요. 그대가 귀서각에 들어선 순간 미션은 시작되었소.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책에 쏘옥 빠져들면 순식간에 해결할 것이오. 자, 출발하시게나.

내 이름 _____

● 읽기 앞서

■ 표지 읽기

▶ 무엇이 보이요?

▶ '귀서각'은 무엇이겠소?

▶ 선생님이 들려주는 말에 귀 기울여 보시오.

* 표지 오른쪽 아래 세로로 쓰인 글귀요.

'추운 밤이었다. 문을 아무리 꽂꽂 닫아걸어도 소용없었다. 췌애애앵 휘이이 바람이 한바탕 푸드덕거리자 책방 문이 떨어져 나갈 듯 털썩 거렸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소?

● 읽으면서

■ 1장~2장 읽기

▶ 주인공 구오는 어떤 인물이요?

* 1~2장을 읽으면서 또는 읽고 나서 구오가 어떤 인물인지 말해 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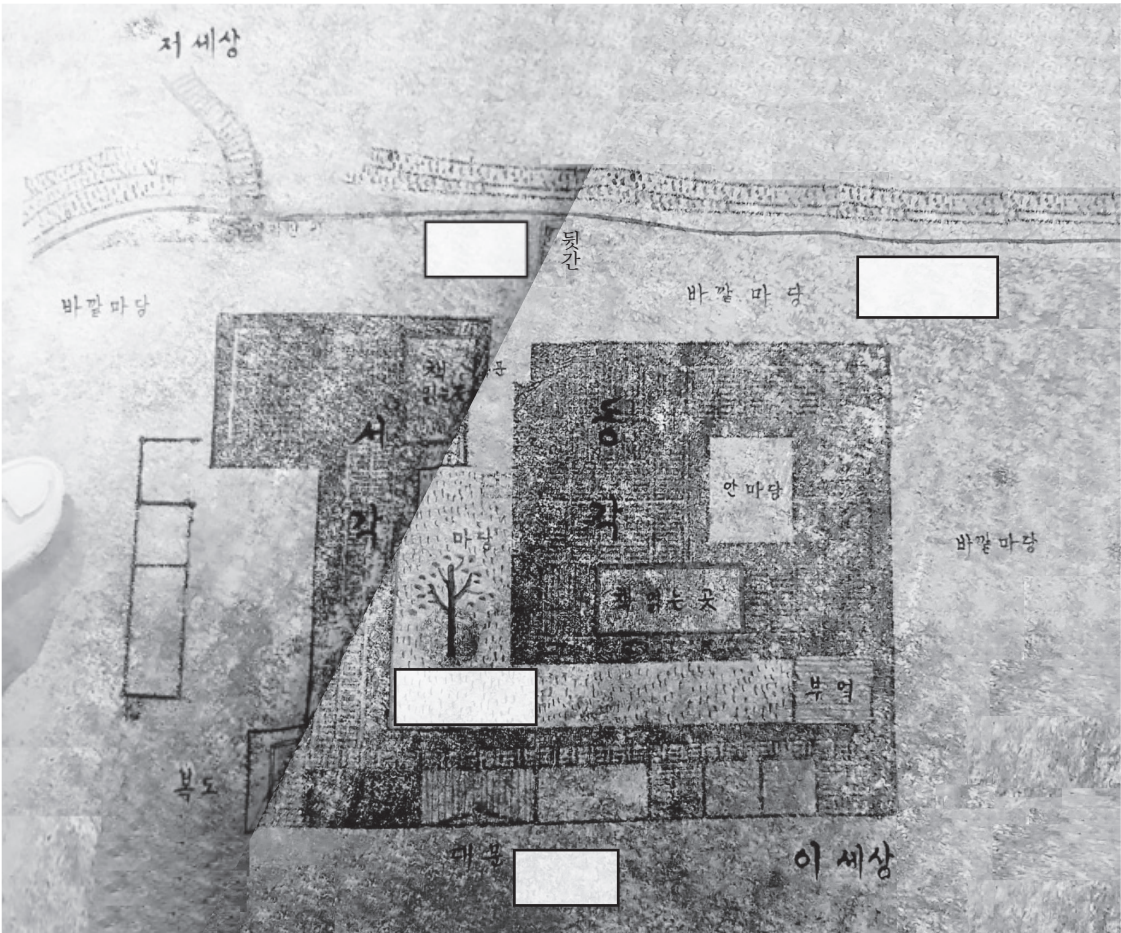


■ 3장~5장 읽기

▶ 구오가 귀서각에서 새롭게 만난 인물은 누구요?

▶ 구오가 귀서각에서 하게 된 일은 무엇이요?

▶ 다음 귀서각 지도(책 62~63쪽)를 보시오. 6장부터 17장까지 읽으면서 이 지도를 이용하여 미션을 해결하시오.



귀서각 지도 (62~63쪽)

■ 6장~17장 읽기

▶ 구오가 처용의 얼굴을 찾으러 가는 길을 순서대로 지도에 나타내시오.

* 8장부터 책을 유심히 살펴보고 번호, 화살표, 선 등으로 나타내시오.

▶ 구오가 귀서각 곳곳에서 찾은 처용의 얼굴이 무엇인지 찾은 장소에 맞게 지도의 칸에 쓰시오.

▶ 처용의 얼굴을 찾을 때마다 모습을 상상하여 아래 얼굴에 그려 넣으시오.
그리고 각 얼굴 조각이 구오에게 어떤 힘을 주었는지 쓰시오.



· 눈

· 코

· 귀

· 혀

· 입

■ 18장~21장 읽기

- ▶ 송 영감이 창귀가 된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 ▶ 259쪽까지 읽고서 멈추시오. 그리고 아래 글을 읽으시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내내 못 한 말을 꺼내어 물었습니다.

자기를 원망하지는 않더냐고.”

송 영감이 창귀 턱에서 튀어나올 듯 고개를 내밀었다. 기대

에 가득 찬 표정이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듣고 싶은 걸

까? 자기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구오는 이야기를 가로챘다.

- ▶ 구오가 송 영감(창귀)을 이승에서 떠나보내기 위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는지 말해 보시오.

송 영감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창귀 몸에서 쭈욱 빠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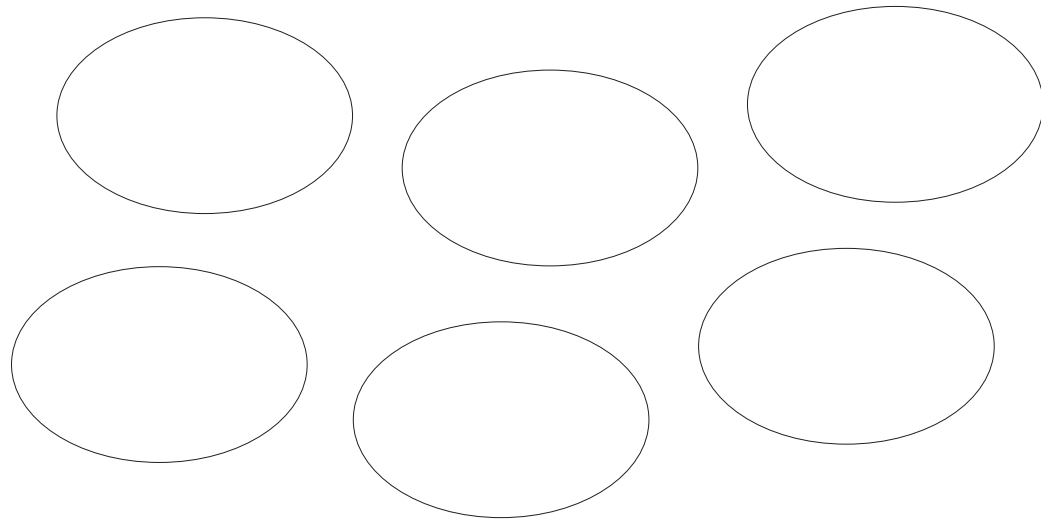
왔다. 그러고는 아무한테도 눈길을 주지 않고 희고 텅 빈 하늘

한가운데로 빨려들 듯 사라졌다.

- ▶ 원래 이야기가 어떠한지 260쪽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여 21장 끝까지 나아가시오.
- ▶ 기껏 처용의 얼굴을 모았지만 사실 처용의 얼굴로는 송 영감(호랑이 귀신)을 이길 수 없었소. (250~251쪽)
그런데 그런 송 영감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구오의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오.

■ 뒷이야기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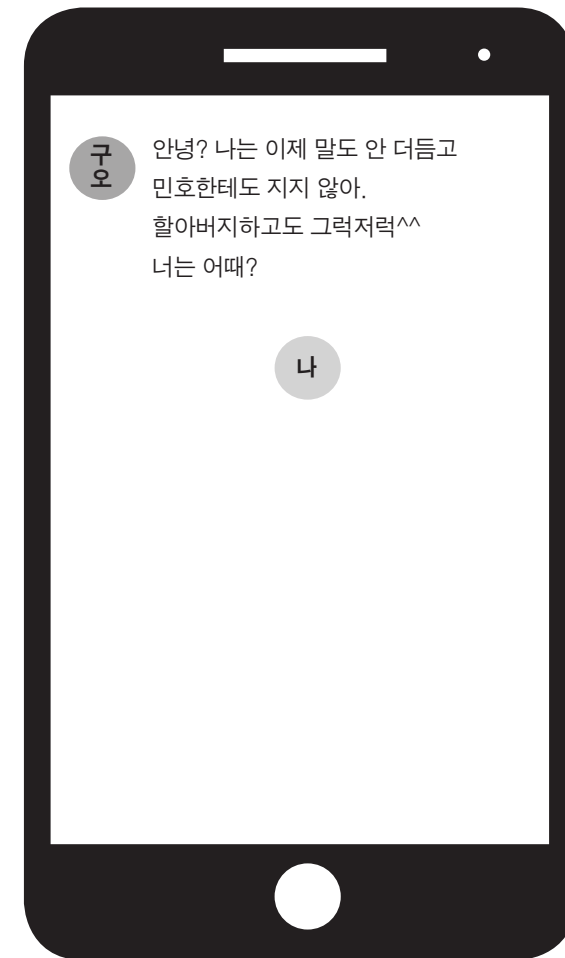
- ▶ 16쪽과 281쪽을 비교하며 읽으시오.
귀서각을 다녀온 구오에게 이전과 달라진 점이 보이오? 찾아보시오.



- ▶ 구오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오?

● 읽고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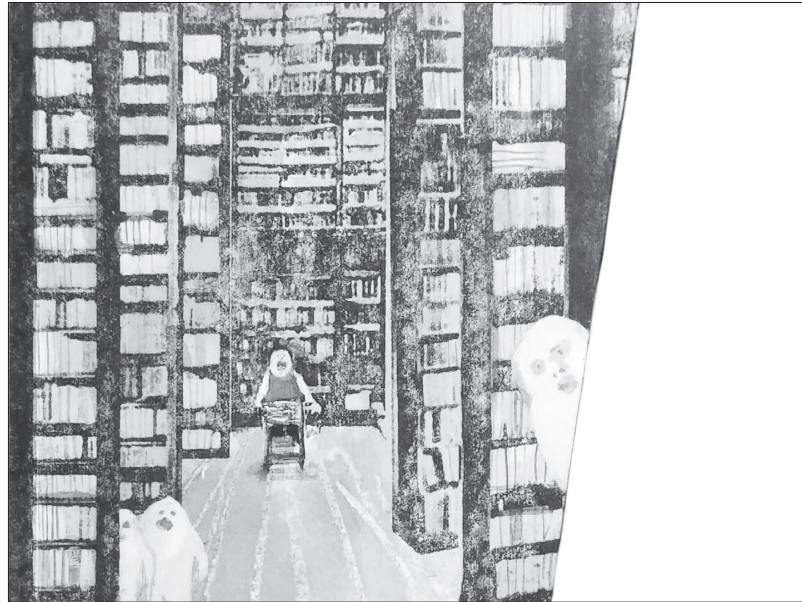
- ▶ 구오처럼 그대도 달라지고 싶은 점이 있소?
구오와 비밀 채팅을 해 보기를 권하오.



* 대화는 혼자만 간직해도 된다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다면 용기를 내어 그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 익명으로 친구의 사연을 받아 고민을 들어주어도 좋소.

- ▶ 귀서각에 『책선생 최구오전』이 생겼다고 하오. 구오가 겪은 일과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이 전기문의 제목과 부제목을 붙여 주시오.



- ▶ 끝ियो. 책 속에 길이 있었소이까?

신과 함께 띠 빙고를! _ 책놀이 자료

우리 문화도 알고 놀이도 하고

▶ ‘처용’은 누굴까요?

처용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에 있어요. 처용은 노래와 춤을 잘하며 용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느 날 처용이 집에 들어가 보니 아내가 웬 다른 남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처용은 화를 내기보다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본모습인 역신이 되어 처용 앞에 무릎을 꿇고는 처용의 얼굴이 있는 곳이면 그 집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뒤로 사람들은 처용의 얼굴을 대문 앞에 그려 붙여 역신을 피했다고 합니다.

▶ 부뚜막 할멈



부뚜막 할멈은 우리나라 집지킴이 신 중 하나인 조왕신이에요. 부엌을 지키는 신으로 조왕할머니, 조왕각시라고도 불려요.

옛날에 남 선비란 사람이 장사하러 오동고을에 갔다가 노일자대란 여인의 꾀에 빠져 재물도 다 털리고 눈까지 먼 거지가 되었요. 그 부인이 남편을 찾아 오동고을에 왔다가 역시나 노일자대의 꾀에 빠져 연못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뒷날 옥황상제가 그 부인이 오랫동안 차가운 연못 속에 있었으니 따뜻한 부엌에서 살라고 조왕신이 되게 했대요.

조왕신은 부뚜막을 더럽히는 것과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조왕신이 노하면 식구들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외양간 가축이 쓰러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늘 부엌을 깨끗이 하고 먹을 것은 아끼고 소중히 여겼답니다.

▶ 다자구 할멈

다자구 할멈 이야기는 충청북도 단양에서 전해지는 신화로, 죽령산신이라 불리는 산신령 중 한 명이에요.

단양의 죽령 일대에 도적떼가 자주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대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단양군수에게, 자기가 “다자구야!” 외치면 도적 떼가 잠을 자고 있는 신호요, “들자구야!” 외치면 도적 떼가 자지 않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뜻으로 알라고 말하고는 도적 소굴로 들어갔어요. 어느 날 두목의 생일을 맞아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신 도적들이 취해서 곤히 잠들자 할머니는 “다자구야!” 하고 외쳤고, 숨어 있던 군사들이 한순간에 도적 떼를 잡았대요. 그 뒤로 다자구 할멈은 이 일대를 지키는 산신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우리나라 산신령은 산도 지키고 사람의 마음도 지키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일을 합니다.



▶ 뒷간 각시

뒷간 각시는 뒷간을 지키는 측신으로 집지킴이 신 중에서 가장 마음씨 고약한 신이에요. 바로 조왕신 이야기에 나오는 노일자대가 측신이니까요. 노일자대는 잘못이 날날이 밝혀진 뒤 도망치다가 뒷간 문설주에 머리를 부딪혀 죽는데, 그 인연으로 뒷간을 지키는 측신이 됩니다.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뒷간은 반드시 본채에서 멀리 떨어진 후미진 곳에 지었어요. 특히 본채의 부엌에서는 절대로 뒷간이 보이지 않게 지었지요.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과 뒷간을 지키는 측신이 사이가 좋지 않으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지요.



* 신령 이야기는 『우리 신 이야기』(서정오, 현암사, 2008)에서 가려 뽑아 실었습니다.

▶ 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는 우리 신 이야기를 더 찾아보아요.

■ 띠 빙고 놀이하기

- ▶ 이 책에 나오는 우리 신령과 귀신을 모두 찾아보세요.
- ▶ 위에서 찾은 신령과 귀신 이름을 골라 오른쪽 띠에 씁니다. 한 칸에 하나씩만 써요.
- ▶ 완성한 띠를 잘라 냅니다.
- ▶ 술래가 부르는 신령이나 귀신 이름이 띠의 양 끝 칸, 곧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에 있으면 떼어 냅니다. 안쪽에 있으면 뗄 수 없어요.
- ▶ 칸을 가장 먼저 다 뗀 사람이 이깁니다.
- ▶ 한 번 더 해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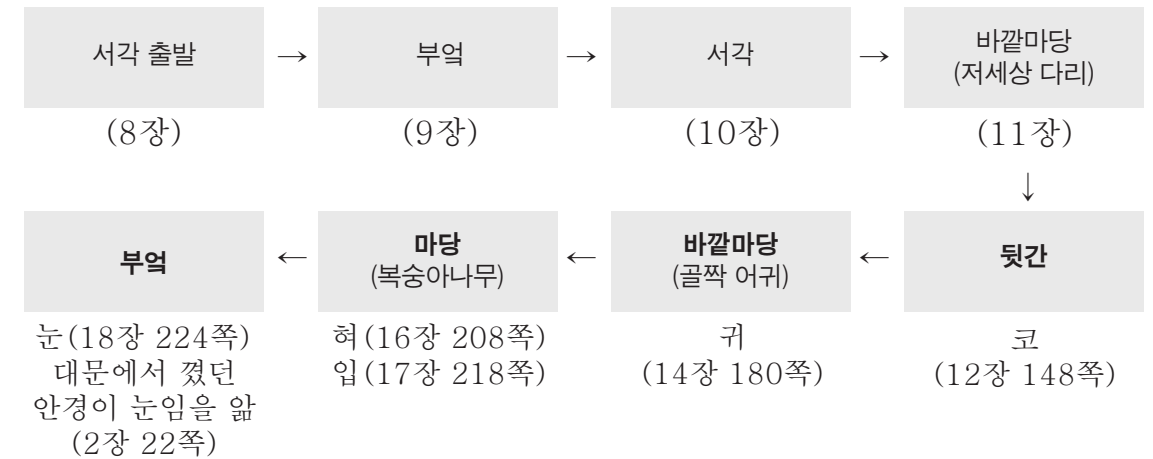
학생 활동지 해설

■ 활동 방법

- ▶ <한밤에 깨어나는 도서관 귀서각>은 모두 22장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고려하여 크게 1~2장, 3~5장, 6~17장, 18~21장, 뒷이야기로 나누었습니다.
- ▶ 학생들이 책을 읽어 가며 미션을 해결하도록 활동지를 구성하였습니다.
- ▶ 학교 상황에 따라 각자 한 권씩 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을 읽을 때는 모두 함께 읽으며 속도를 맞추도록 합니다.
- ▶ 교사 읽어 주기, 교사와 학생 번갈아 가며 읽기, 학생끼리 돌아가며 읽기, 혼자 읽기 방법 따위로 읽을 수 있어요.

■ 4쪽 해설

- ▶ 6장~17장에는 처용의 얼굴을 찾는 과정이 복잡하게 펼쳐집니다. 본격적인 여정은 8장부터 시작합니다.
- ▶ 처용의 얼굴을 찾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구오는 코, 귀, 혀, 입을 찾은 뒤 눈이 맨 처음 켜던 안경이라는 것을 부엌에서 알게 됩니다. 이 활동지에서는 안경을 처음 켜던 귀서각 대문에서 눈을 찾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눈을 발견한 곳은 대문일까요, 부엌일까요? 어느 곳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는지 학생들과 이야기해도 재밌겠습니다.

■ 6~7쪽 활동 해설

20장 260~261쪽은 구오가 그동안 껍썩 눌러 왔던 부모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털어놓는 장면입니다. 원망하지만 그리웠다는 구오의 진심에 송 영감 또한 마음의 짐을 벗고 이승을 떠나게 되지요.

구오의 이야기를 학생들이 단순히 “꺼져!” 또는 분위기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엉뚱한 대답으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용의 얼굴로도 없앨 수 없었던 창귀를 물리친 결정적 한방은 구오가 자신을 두고 떠난 아버지를 떠올리며 창귀에게 드러내 보인 진솔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구오는 자신을 버린 부모를 원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처럼 어린 자식을 버린 송 영감에게 부모에게 하고 싶었던 원망을 퍼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구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구오가 부모를 원망하는 만큼 한편으론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마음을 솔직히 인정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 구오는 진심을 드러내는 용기로 창귀를 이길 수 있었고, 그것은 곧 구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구오는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고, 민호와도 친구로 지낼 수 있으며, 할아버지가 버럭 해도 가볍게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강릉에 있을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만날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함을 찾아낼 수 있도록 사려 깊은 안내가 필요합니다.

■ 8쪽 활동 해설

구오의 이야기에서 ‘나’의 이야기로 적용하는 활동입니다.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속내, 내가 이겨 내고 싶은 나의 약점,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곰곰 떠올려 채팅 창을 완성하도록 하세요.

선생님도, 학생들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은 누군가의 것을 절대 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후 활동을 시작합니다. 익명으로 친구의 채팅 창을 읽고 고민을 나누거나 해결 방법을 찾아 조언하는 활동으로 마무리해도 좋겠습니다.

선생님 읽을거리

<한밤에 깨어나는 도서관 귀서각>

- 어른의 그림자를 떨치는 어린이의 힘과 목소리를 찾아서

글 박해영

여기 구오가 있다. 말더듬이에 친구도 없고 할 줄 아는 건 주먹질뿐이다. 8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갔다. 아빠는 책에만 푹 빠져 사는 사람이다. 어디 귀한 책이 있다면 몇 날 며칠 집에 안 들어온다. 참다 못한 엄마는 가출했고, 구오는 귀신 책방이라 불리는 낡은 헌책방에서 할아버지랑 같이 산다. 할아버지는 구오가 겁이 많다며 못마땅해 한다. 구오에겐 집도, 학교도, 책방도 탈출구가 돼 주지 못하고 그 틈을 송 영감(창귀)이 파고든다.

동화에서 주인공 어린이의 길을 인도하거나 가로막는 다양한 어른의 권위가 나오지만, 그 권력이 어떠한 간에 어린이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어른의 그림자를 딛고 독립된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 동화의 본령이다.

작품에서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무관심했던 어른과 어린이를 이용하는 어른이 나온다. 무관심했던 어른은 어린 구오에게 상처를 남기고 떠난 부모요, 구오를 이용하는 어른은 자기 상처를 남에게 덧씌우며 분풀이하려는 창귀이다. 어찌 보면 허약하달 수 있는 가짜 권위를 지닌 어른이다. 어린이가 어른과 대등한 지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권력의 역전(카니발)을 이끌어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작품은 어린이가 자기를 온전히 들여다보고 자기 내면의 힘을 찾을 때 그러할 수 있다고 구오를 통해 보여 준다.

구오가 귀서각에 들어와 책선생이 된 때부터 변화는 시작됐다. 바로 말더듬이 사라진 일이다. 책 읽어 달라는 손각시의 위협에 살자고 필사적으로 읽다 보니(책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말더듬이 사라졌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구오가 ‘책선생 길잡이’를 수선했던 일이다. 주먹질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구오가 유일하게 잘하는 일은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헌책 수선이었다. 마음을 열지 않

으면 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책선생 길잡이의 목소리는 구오에겐 처음부터 들려왔다. 책선생 길잡이가 이야기 끝에서 자기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작은 인연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자기 재주를 발견한 구오의 다음 여정은 자기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이다. 눈, 코, 귀, 입의 순서로 처용 조각을 찾는 과정은 의미심장하다. 처용의 눈인지 모르고 꺾던 안경 때부터 구오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이어 말지 않아도 될 것을 말고,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듣는 등 구오의 모든 감각이 활짝 열리면서 제 속에 숨은 그림자를 마주한다. 처용 조각을 착착 찾으면서 자신감을 얻는가 싶더니 구오는 귀신들이 저더러 겁쟁이라 소곤대는 소리에 쪼그라든다. 남에게 드러내기 가장 싫은 겁 많은 속내를 마주치기는 너무 괴롭다. 그렇지만, 귀신 잔치 날이 동티나고, 몰려오는 귀신들을 당해 낼 수 없을 절박한 순간, 구오는 배에 힘주고 처음으로 소리친다. “저리 가아!” 구오의 겁을 먹고 덩치를 키운 귀신에게 꺼지라(“당장 사라져!”) 소리친다.

처용이 된 구오와 창귀가 돼 버린 송 영감(호랑이)의 대결은 구오가 자신이 말더듬이에 주먹질밖에 못하는 찌질이가 되게 했던 아버지를 마주하는 절정부이다. 귀신 잔치 날 송 영감이 이야기를 미리 읽었던 구오는 떠나간 엄마, 아빠를 원망했지만 원망만큼 그리웠던 자신의 마음을 본다. 처용의 입이지만 원망한다는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고, 그렇기에 가족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린 아버지(송 영감)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었다. 그것은 고통 속에 있던 송 영감을 구원하는 일이었으며, 구오도 자신을 짓누르던 아버지의 그림자를 떨쳐 버린다.

귀서각에서의 모험은 끝났다. 그러나 구오는 자기를 괴롭히던 민호랑 만나기로 했다며 할아버지에게 대꾸한다. 그리고 저처럼 그림자를 딛고 일어선 친구 제이의 편지를 통해 현실의 부모를 마주할 기대를 보인다.

이렇듯 작품은 어른에게 상처 받고 그 권위에 짓눌렸던 어린이가 자기 모습을 대면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과정이다. 무관심하고 어린이를 이용하려 했던 가짜 권위에 목소리를 내며 힘의 균형점을 어린이에게로 적극 가져온다.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며 그림자를 벗고 독립된 주체로 서는 길을 보이면서 변화를 이어 간다.

#캐릭터는_살아_있다 : 송 영감

글 황선주

이보게, 난 말이야, 그 아이를 잡아먹을 생각까진 없었어. 그저 내 책방에서 일해 줄 사람 하나 찾으러 간 것뿐인데 아, 글썄 그날따라 어찌나 춥고 바람이 불던지. 썩애애앵 휘이이... 문 연 데라곤 만권 책방밖에 없었네. 원래는 책방 주인인 늙은 영감 하나를 데려갈 생각이었네만, 그 영감 손자가 앉아 있더라고. 그런데 이 녀석이 폰돈이라도 벌 요량인지 가자고 하니 덩석 따라 나오지 않겠나. 구오, 그 아이 이름이 구오네. 열두어 살 정도 됐겠지.

귀서각은 한 땀혀 떠나지 못하는 귀신들을 묶어 놓은 곳이네. 나도 삼백 년 동안이나 가야 할 곳으로 못 가고 귀서각에서 저승 길목만 지키고 있었지. 죽은 이들의 화를 다스려주던 유일한 사람들이 책선생인데 그들이 자꾸 없어지는 걸세. 나는 그들이 왜 사라지는지 정말로 몰랐네. 정말로... 마지막 책선생으로 구오를 들였어. 그리곤 나도 마음을 갈고 또 갈고 닦았지. 내 안의 창귀를 잠재우기 위해서 말일세. 그런데 말이야, 한순간이었네. 나도 모르게 창귀를 깨우고 말았어. 삼백 년이나 이려고 살았으면서도 저승 가긴 아직도 두려웠나 보이...

나는 책에 빠져 집안을 돌보지 않았지. 결국 막내 아들을 팔아 돈을 마련했는데, 창귀가 나를 먹었어. 창귀는 내 목소리로 아내를 꺾어 아내도 먹고, 아내 목소리로 큰 아이도 꺾어 먹었네. 사람 하나를 잡아먹어 굴각 창귀, 또 하나 꺾어 먹어 이올 창귀, 또 하나 꺾어 죽혼 창귀, 온 마을 사람을 다 잡아먹어도 성이 안 차는 창귀에게 붙어 지내며 이젠 내가 창귀인지 창귀가 나인지 모르게 되었네. 하지만 저 세상으로 갈 수가 없었네. 막내 아들까지 저 세상에 와 있을 텐데, 내가 어찌 그들을 보겠나. 그 아이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미안하다는 말밖에... 창귀는 이렇게 말하더군. “백 번 천 번 미안하다고 한들 네가 한 짓이 사라질까! 늙은이, 그만 포기하지 그래. 아무도 너 같은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구오가 외쳤어. 그렇지 않다고. 원망하지만 그리워할 거라고, 그러니까 곁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야. 이제 여한이 없어. 그 어린 녀석이 결국엔 나를 구했네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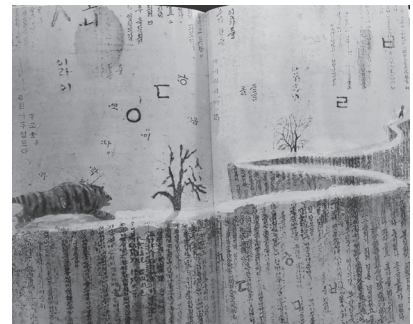
▶ 야광이

방해자이면서 조력자. 은근히 약 올리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재촉하는 캐릭터. 마지막에 약왕보살이 되면서 구오와 제이를 지켜 보는 절대신으로 밝혀짐.



▶ 책선생 길잡이

책 수선했던 인연으로 구오를 계속 도움. 구오에게 친구의 의미를 알려 준 인물이 아닐까? 구오는 처음부터 책선생 길잡이의 목소리를 들었음. 사قم 역할을 다 한 뒤 퇴장.(불태워짐)



▶ 제이

똥보. 집에 못 돌아가는 겁쟁이. 현실 외면. 책속에만 있고 싶음. 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어 귀신도 아니지만 사람도 아님. 귀서각을 나갈 방법은 책 속에 있다면서도 자기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양면적 인물. 책의 양면성이기도 함. 책선생으로 구오 같은 어린애가 오고 구오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실로 돌아갈 용기를 냄.

구오가 삶을 살아갈 현실 세계에서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같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인물. 어린이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의논 상대.



* 동화읽는초등샘이쓰고짓는우리동화씨평웹진 Bzine 1호-보린편(2020.6.17.)에 실은 글을 옮겼습니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